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일하는 도정 변화 추구’ 전북도, 민선8기 조직개편

기업유치로 전북경제 회복 · 일자리 창출

2일 9국 2본부 → 3일 9국 1본부로... 공약 추진 토대 마련
5일부터 도민 의견 수렴 · 9월 의회 심의 거쳐 10월 중 시행

민선8기 김관영 전북도정이 전북의 새로운 기반 마련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기업유치에 대한 전북도의 의지를 표명하고 일하는 도정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안이 담겼다고 밝혔다.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1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추진동력 확보 및 성과 도정으로 혁신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오는 8월 5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먼저, 도지사는 기업유치에 전념한다. 도지사는 신설되는 기업유치지원실을 직속으로 두고 기업유치와 기업애로 해소 및 창업지원 등 기업유치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한다. 민생경제 분야는 행정부지사가 전담해 분야별 업무 효율성을 추구한다.

특히, 새롭게 신설되는 기업유치지원실에는 투자금융과, 새만금개발에 분산되어 있던 기업유치 기능을 기업유치추진단으로 일원화하고, 기업지원과는 기업애로해소추진단으로 재편하는 한편 창업지원단을 신설해 전북의 청년들의 창업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협력추진단을 통한 교육청과의 협력구조를 강화한다. 통합적 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도와 교육청에서

분산되고 중첩된 교육정책을 지역사회의 협력 속에서 교육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지역 대학과의 협력·협업을 통해 대학과의 소통을 강화해 위기의 지방대를 살리는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

또, '역동적 조직'으로의 전환을 위해 부서장 중심의 조직체계도 개편한다. 기존의 7국 29과 121팀을 폐지해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던 기존의 팀장도 업무를 맡아 처리하게 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과 신속성·탄력성을 제고하는 등 조직 혁신을 시도한다. 업무량 증가 및 신규사무 추구에 따라 총정원은 5,471명으로 37명이 증원된다.

약 20년 이상 업무를 맡아온 사무관 직책의 실무 투입으로 일하는 도정으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유사·중복 기능 및 쇠퇴·감소하고 있는 사무를 통·폐합해 전북도정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추진 동력 확보에 중점을 둔다.

하나, 기존의 경기도와 강원도의 사례를 빚대어 보면 기존 팀장 직급을 달고 있는 사무관(5급)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전라북도가 처한 환경이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로 인해 심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현재 팀장들과 각각 벤치마크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대가 변화했다는 걸 체감하며 팀장들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사진 왼쪽)가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조직개편안 브리핑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각 국별 조직구조가 변화된다. 대외협력국을 폐지함에 따라 정부기획과의 기능은 자치행정과로, 홍보기획과는 소통기능 강화와 함께 소통기획과로, 국제협력과는 통상기능을 더해 국제통상과로 변경 후 각각 기획조정실과 경제통상국으로 이관한다. 이와 함께 일자리경제본부를 재편해 기업유치 및 지원 업무를 신설되는 기업유치지원실로 이관하고 일자리정책,

소상공인, 금융산업육성 등의 업무를 묶어 경제통상실로 재편해 민생경제 활성화의 역할을 부여한다. 환경녹지국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환경정책과와 생활환경과로 조직을 재편한다. 또한 정부의 물관리 정책에 따른 기존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던 하천관리 업무를 물환경관리과로 이관한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8기 핵심 공약인 기업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전북 구현에 중점을 두고, 행정환경 변화와 도정 현안수요에 적극 대처하는 효율적·능동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안은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듣고 9월 초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제394회 전북도의회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

대한민국인재상 '도전하세요'

도교육청, 24일까지 접수
도내 고교 재·휴학생 대상
만 34세 이하 청년도 가능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2 대한민국 인재상 후보자'를 추천받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인재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잠재력과 전인적 소양을 갖춘 우수 인재를 발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로 22년째다.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도내 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다. 선발인원은 고등학생 50명, 대학생·청년일반인 50명 등 총 100명으로, 이 가운데 전북 지역 고등학생 추천 인원은 6명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최종 3명을 선발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24일까지며, 대한민국인재상 접수포털(http://injaxaward.saramin.co.kr)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 지원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추천서는 유의사항을 참고해 반드시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로 우편제출해야 한다. 수상자 1인에게는 국무총리상(상금 300만원)을, 99인에게는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상(상금 200만원)을 수여하며, 수상자에게는 공개토론회(포럼) 참여 등 다양한 활동 기회도 부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과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전북에서는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이예원 학생이 '2021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은성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민선8기 첫 추경, 원안대로 도의회 통과

전북도, 지역경제·민생 살리기 모멘텀 확보

순도비사업 포함 추경안으로는 10년 만에

김 지사 "이제부터가 중요... 실질적 결실 거둬야"

민선8기 김관영 도정의 첫 추경예산안이 원안 그대로 도의회에서 통과됐다. 순도비사업이 포함된 추경으로는 10년 만에 처음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순도비사업이 포함된 민선 8기 첫 번째 추경예산이 10년 만에 최초로 원안이 통과됐다"며 "이를 통해 전북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첫 번째 모멘텀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민생과 경제, 혁신의 길을 크게 열어주는 도의회 의정남

과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린다"며 "이 같은 중대한 결실을 거두기 위해 노력

해 준 도 지휘부와 관계관들에게도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추경 원안 통과와 관련해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귀한 성과인 만큼 실질적으로 결실을 거둬야 한다"며 "추경안이 적시에 투입되도록 집행절차를 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특히 "기획조정실장 책임 하에 예산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들은 협업해 액션플

랜을 수립하고 홍보방안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특별자치도와 관련한 법률의 발의가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계관들에게 재차 강조했다. 이어 "여·이를 넘어 초당적 발의로 힘을 모으고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법률은 입법 절차이니 국회가 중심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김경수 기자

새로운 시작으로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미래 진안**



진짜 진한 진안홍삼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 ✓ 전국유일 홍삼특구!
- ✓ 세계유일 홍삼명인!
-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 진안삼 사용
- ✓ 국가지정 홍삼연구소의 성분검증!
- ✓ 진안군수 품질인증!



진안홍삼과 함께 온가족 건강 챙기세요

진안홍삼-한방
클러스터사업단

진안홍삼연구소가 검사, 관리하고 진안군이 품질을
인증한 제품에만 사용되는 마크입니다.

Tel. 063)433-8398
www.jinansam.com



소핑몰 바로가기